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1.9%(언어폭력(37.1%), 신체폭력(17.3%), 집단따돌림(15.1%) 순)
- 올해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기점으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4.12.)'의 성과가 나오도록 할 것

교육부는 16개 시도교육청(전북교육청 자체 추진)과 2023년 4월 10일부터 5월 10일 까지 4주 동안 실시한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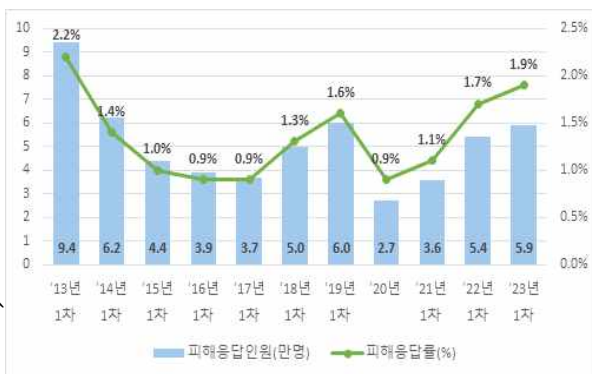
< 2023년 1차 실태조사 개요 >

-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기간 및 방법) 2023.4.10.~5.10. (4주), 온라인 조사
- (조사대상) 초4~고3 재학생 전제(384만 명) ※ 조사 참여율: 82.6%(약 317만 명)
- (조사내용) 2022년 2학기부터 응답시점까지의 학교폭력 피해·가해·목격 경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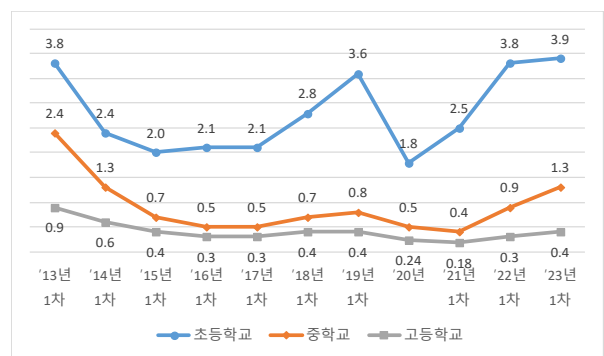
전체 피해응답률*은 1.9%로 2022년 1차 조사(2021년 2학기~2022년 4월 응답시점)에 비해 소폭(0.2%p) 증가하였다. 학교급별로는 초 3.9%, 중 1.3%, 고 0.4%로 조사 되어 각각 0.1%p, 0.4%p, 0.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참여한 학생 중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

【 피해응답인원 및 응답률 】



【 학교급별 피해응답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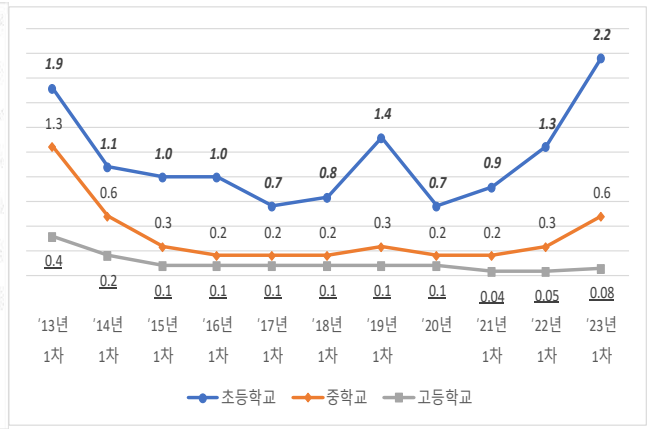
학교폭력 피해유형은 언어폭력(37.1%), 신체폭력(17.3%), 집단따돌림(15.1%) 순으로 나타났으며, 2022년 1차 조사 대비 언어폭력(41.8%→ 37.1%)과 사이버 폭력(9.6% → 6.9%) 비중은 감소하였으나 신체폭력(14.6%→ 17.3%) 비중은 증가하였다. 집단따돌림, 사이버폭력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고, 과잉 접근 행위(스토킹), 신체폭력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응답률이 낮게 나타났다.

학교폭력 가해응답률은 1.0%로 2022년 1차 조사 대비 0.4%p 증가하였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2.2%, 중학교 0.6%, 고등학교 0.1%로 조사되어 초등학교는 0.9%p, 중학교는 0.3%p 증가하였다.(고등학교는 거의 동일)

【 가해응답인원 및 응답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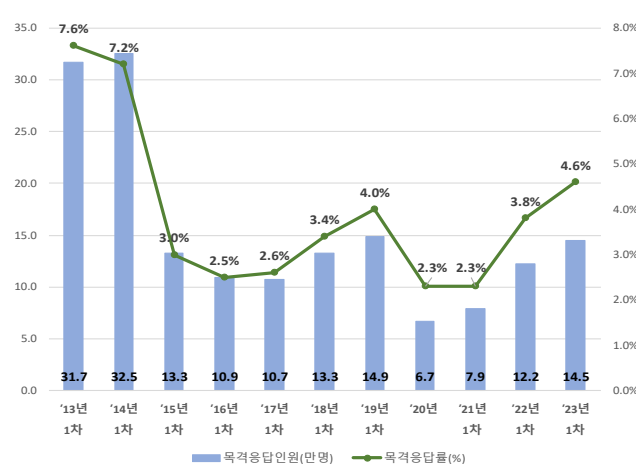


【 학교급별 가해응답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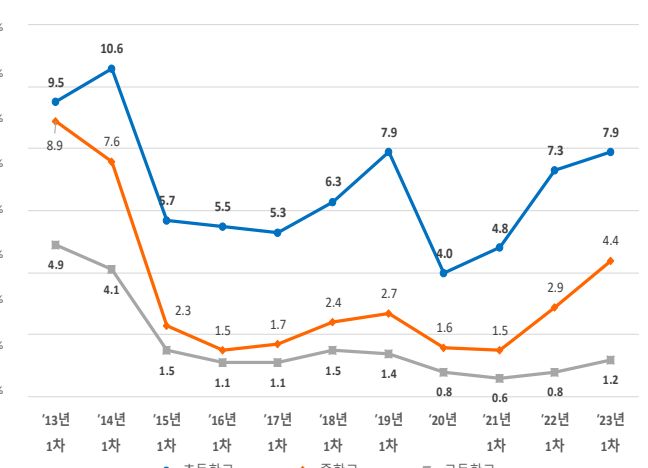


학교폭력 목격응답률은 4.6%로 2022년 1차 조사 대비 0.8%p 증가하였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7.9%, 중학교 4.4%, 고등학교 1.2%로 조사되어 각각 0.6%p, 1.5%p, 0.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목격응답인원 및 응답률 】



【 학교급별 목격응답률(%) 】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빈틈 없이 보호하고 가해학생에게는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발표(2023.4.12)하였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2023.10.24)을 완료하였다. 또한, 학교 현장이 학교폭력 처리 업무에 대한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 피·가해학생 관계개선 및 회복, 피·가해학생

지원 등 교육적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 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2023.12.7)하였다.

*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피해학생의 분리 요청권 부여, 학폭 조치사항 대입 의무 반영, 학교폭력 제로센터 설치·운영 등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도 도입, 학교폭력 사례회의 신설,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등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과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방안’을 내년 1학기에 차질 없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내실 있게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학생들의 마음건강 및 사회·정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부서 신설,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인식도 조사에 가까운 이번 실태조사가 학교폭력 사안이 언론보도, 드라마 등을 통해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는 등 사회적 관심이 높았던 시기에 실시되어 전년보다 피해응답률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하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기점으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의 성과가 나오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주요 결과표

담당 부서	책임교육지원관	책임자	과장	김도형	(044-203-6972)
	학교생활문화과	담당자	사무관	김영권	(044-203-6978)



참고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주요 결과표

□ **학교폭력 실태조사 참여율**

구분	2019년 1차	2020년	2021년 1차	2022년 1차	2023년 1차
참여율	90.7	82.6	88.8	82.9	82.6

□ **피해 경험**

조사 내용	주요 결과표														
피해 응답률	구분	전체	초	중	고										
	비율(%)	1.9	3.9	1.3	0.4										
	명수(천명)	59.0	41.1	14.0	3.7										
피해 유형별 비율(%) (복수응답, 건수기준)	구분	언어 폭력	신체 폭력	집단 따돌림	강요	사이버 폭력	스토킹	성폭력	금품갈취						
	전체	37.1	17.3	15.1	7.8	6.9	5.5	5.2	5.1						
	초	36.9	18.2	14.3	8.6	5.9	6.5	4.5	5.1						
	중	36.8	15.7	17.0	6.0	9.2	3.4	6.6	5.3						
	고	39.7	12.3	17.7	5.8	9.8	2.7	6.8	5.0						
가해자 유형 (%) (복수응답, 건수기준)	구분	같은 학교 같은 반	같은 학교 다른 학년	다른 학교	다른 학생	잘 모르는 사람									
	전체	48.3	30.5	7.8	5.3	3.4									
	초	48.1	29.9	8.9	4.6	3.5									
	중	49.6	32.1	5.2	6.5	3.0									
	고	46.3	31.8	5.3	8.2	3.7									
피해 장소 (%) (복수응답, 건수기준)	구분	학교 안 (68.8)							학교 밖 (27.3)						
		교실안	복도 계단	운동장 강당 등	회장실	특별실 방과후 교실 등	급식실 매점 등	기숙사	공원 놀이터 등	사이버 공간	학원 주변	집 근처	학교밖 체활장소	PC 노방 등	기타
	전체	29.0	17.7	10.4	4.4	3.7	3.2	0.4	9.0	6.3	5.0	4.2	2.0	0.8	3.9
	초	27.9	16.7	11.1	4.2	3.3	2.8	0.2	11.6	4.8	6.0	4.8	1.9	0.6	4.1
	중	31.3	20.9	9.2	4.8	4.3	3.6	0.4	3.6	9.3	3.0	2.8	1.9	1.5	3.3
	고	31.3	17.8	8.4	4.9	6.0	5.0	1.9	2.4	10.5	1.7	2.7	2.4	1.4	3.6
	피해 시간 (%) (복수응답, 건수기준)	구분	쉬는 시간	점심 시간	학교 이후	학교 시간	수업 시간	등교 시간	방과후 수업	학교밖 체험 활동 시간	기타				
		전체	31.2	19.2	14.6	11.4	10.8	3.7	3.5	2.5	3.2				
		초	30.7	18.1	15.9	13.1	9.1	3.5	3.9	2.5	3.3				
		중	33.4	21.6	12.2	7.8	13.6	3.8	2.4	2.5	2.6				
고		28.9	21.3	10.9	7.7	16.1	4.6	3.7	3.1	3.7					
피해 사실을 알린 사람 (%) (복수응답, 건수기준)	구분	보호자나 친척	학교 선생님	친구 선. 후배	학교 상담실 선생님	117 신고 센터	학교 전담 경찰관 경찰	학교밖 상담 기관	학교 폭력 신고함	미신고					
	전체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 (92.3)								7.6					
	초	36.8	30.0	14.9	5.2	1.9	1.4	1.2	0.9	8.9					
	중	38.9	29.2	14.7	3.6	2.0	1.0	0.8	0.9	5.6					
	고	33.6	32.0	15.0	7.9	1.7	1.9	1.7	0.7	4.2					
피해 미신고 이유 (%)	구분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야단/걱정 때문에	가해자가 무서워서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지 몰라서								
	전체	28.7	21.4	20.0	16.8	9.9	3.2								
	초	26.3	21.3	20.2	17.6	11.1	3.6								
	중	36.7	20.2	19.7	14.9	6.4	2.1								
	고	34.8	31.1	18.8	8.8	4.8	1.7								

□ 가해 경험

조사 내용	주요 결과표								
가해 응답률	구분	전체	초	중	고				
	비율(%)	1.0	2.2	0.6	0.1				
	명수(천명)	30.3	22.8	6.6	0.8				
가해 유형별 비율(%) (복수응답, 건수기준)	구분	언어 폭력	신체 폭력	집단 따돌림	강요	사이버 폭력	스토킹	금품 갈취	성폭력
	전체	43.7	27.6	7.7	6.0	4.6	3.7	3.5	3.2
	초	44.5	27.2	7.7	6.1	4.2	4.2	3.3	2.8
	중	42.2	28.8	7.5	5.6	5.5	2.0	4.2	4.2
	고	37.3	27.1	7.8	8.7	6.0	3.0	4.7	5.4
가해 이유 (%) (복수응답, 건수기준)	구분					전체	초	중	고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					34.8	33.7	38.9	32.2
	피해학생이 먼저 괴롭혀서					25.6	28.0	19.1	13.6
	피해학생과의 오해와 갈등으로					12.1	10.7	16.1	18.1
	피해학생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서					8.8	8.3	9.8	13.0
	화풀이 또는 스트레스 때문에					8.0	8.2	7.0	9.2
	강해 보이려고					3.8	4.0	2.9	4.4
	다른 친구나 선·후배가 하니까					3.3	3.2	3.3	3.9
	친구나 선·후배가 시켜서					2.4	2.6	1.8	3.1
나의 보호자나 선생님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1.2	1.2	1.0	2.6	
가해 방법 (%)	구분	단독			집단				
	전체	68.0			32.0				
	초	69.3			30.7				
	중	63.8			36.2				
	고	65.1			34.9				

□ 목격 경험

조사 내용	주요 결과표				
목격 응답률	구분	전체	초	중	고
	비율(%)	4.6	7.9	4.4	1.2
	명수(만명)	14.5	8.3	4.9	1.2
목격 후 행동 (%)	구분				
	피해를 받은 친구를 위로하고, 도와주었다.				
	때리거나 괴롭히는 친구를 말렸다.				
	가족, 선생님, 학교전담경찰관 등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했다.				
	나도 같이 피해 학생을 괴롭혔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 본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시·도교육청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조사결과이며, 국가승인통계가 아님을 밝힙니다.